

전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철퇴

전남도, 체납액 징수 강화 위해 수입 물품 관세청에 위탁
 1000만원 이상 명단 294명 공개...총체납액 137억원 규모

전남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전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이들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최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처분을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294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37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임국할 때 가져온 수입 물품을 비롯해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 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

된 286명(총체납액 84억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다.

이처럼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한 자들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즉시 압류조치하게 된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무더위 속 홍련(紅蓮) 활짝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6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 하고제 연방축이 흐드러진 홍련 잔치로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보행자보호강화’ 법 개정...광주경찰, 교통안전시설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전수조사 거쳐 시설 보강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 보호·통행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운전자의

의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의무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과 광주자치경찰위는 광주시와 협력해 교통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법 개정안 시행일에 앞서 광주 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를 노면에 표시하고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다.

특히 1단계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354곳(북구 134곳·광산 133곳·서구 50곳·남부 19곳·동부 18곳)에 교통 안전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유치원 주변 횡단보도 125곳(북구 39곳·광산 36곳·서구 31곳·남부 11곳·동구 8곳)도 시설을 확충한다.

김재환기자

당국 “변이용 백신 개발되면 신속 도입”...전국민 4차접종 ‘논의중’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변이용 개량 백신이 개발되면 신속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기존 백신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6일 “개량 백신 개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량 백신이 개발되면 신속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기존 백신 면역력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화이자·모더나 등에서 개발 중인 변이용 백신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화이자가 개발 중인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 단계다. 화이자사는 오는 10월이면 개량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전 국민 4차 접종 계획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다. 지난해 대국민 접종효과가 떨어지면서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4차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시행되고 있다.

당국은 이날 “전문가 논의 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해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60세 이

최근 유행하는 변이, 기존 백신 회피
 전 국민 4차 접종 관련 전문가 논의중

상 4차 접종률은 31%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방접종이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전반에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입된 백신 물량은 화이자 1903만회분, 모더나 508만회분, 노바백스 233만회분, 안센 49만회분 등 총 2694만회분이다.

기동취재본부

尹 ‘광주 복합몰’ 공약 현실화... ‘더현대 광주’ 추진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 ‘호남지역 최고 복합문화 공간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인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가 실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11면〉**

현대백화점그룹이 광주광역시 도심에 ‘여의도 더현대 서울’을 능가하는 대규모 미래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가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부동산 개발 기업 ‘휴먼스홀딩스1차PFV’와 광주광역시 북구 일대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 31만㎡에 ‘더현대 광주’ 출점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현대백화점그룹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점포 규모는 현재 논의 중으로, 대형 복합쇼핑몰에 걸맞은 대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 상권을 아우르는 핵심 쇼핑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

더현대 광주는 미래형 문화복합몰의 새로운 시도라는 상징성도 있다. 현지 법인화를 통해 독립 경영을 하며, 지역 협력 업체 육성과 인재 채용 등 지역 경제 증진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복합몰이 개장하면 2만2000명의 지역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더현대 광주’는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이 보여준 차별화된 공간 기획과 브랜드 구성 능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것”이라며 “50년이 넘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유통 역량과 노하우를 결집해 다양한 문화 체험 콘텐츠를 추가하면 호남지역 최고의 복합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